



## 전자책의 모든 것 한눈에...디지털 북페어 코리아 국내 유일 전자출판전문 전시회...전자출판대상 시상식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제3홀에서 '2014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를 개최했다. 행사 첫날인 11월 6일에는 전자출판 분야의 우수한 작가와 전자책을 발굴해 시상하는 '2014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국내 유일 전자출판 전문 전시회인 '2014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가 문화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킨텍스 주관으로 열렸다. 개막식에는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상운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리디북스, 북큐브 네트워크 등의 전자책 전문 유통사, 북잼, 아이이쿵 등의 전자책 전문 제작사, 나모인터랙티브, 다우인큐브 등의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비롯해 종이책을 기반으로 전자책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살림출판사와 도서출판 북극곰

까지 110여 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을 선보였다. 과거 개최된 유사 전시회와 비교해 역대 최대 규모다.

### 올 한 해 최고의 전자책 선정 총 24편 수상

행사 첫날인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문화부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디지털 문학 분야의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국내 전자책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자책과 작가 부문에 총 500여 종이 경쟁했

며, 수상작은 24편으로 작가 및 전자책 부문에서 각 12편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되는 대상에는 황희 씨의 '월요일이 없는 소년'(작가 부문), 와이팩토리의 '비버와 빨간 장화'(전자책 부문)가 선정됐다. 전자책 부문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제작사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이포트폴리오'가 수상했다. 수상작들은 행사 기간 동안 전시됐으며, 특히 작가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통한 멘토링과 함께 수상작의 전자책 제작·유통 등이 지원된다.

## 국제 콘퍼런스 통해 출판시장 동향·중국 진출 전략 모색

전시회 첫날인 11월 6일 오후 1시 30분 킨텍스 제1전시장 3홀 콘퍼런스홀에서 ‘디지털 시대, 출판의 세계화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주제발표 1에서는 전자출판 분야의 국제디지털출판포럼(IDPF) 사무총장인 빌 맥코이가 ‘디지털 시대, 그리고 출판의 세계화’, 주제발표 2에서는 중국 오주전파출판사의 덩진후이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빌 맥코이 사무총장은 주제발표에서 “디지털콘퍼런스에서 자주 듣는 말은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모든 글이 단문화되고 있다, 모든 디지털콘텐츠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는 중요한 난제다, 전자책 업계의 승리자는 아마존이다 등의 5가지다. 이는 모두 잘못된 통념이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출판은 책자형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혁신의 여지가 많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덩진후이는 중국의 디지털 출판에 대해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중 전자책은 아직까지 점유율이 낮지만 성장 여력이 매우 크다. 중국 전자책 출판은 끊임없는 영역 분할, 충돌, 구조조정을 거쳐 마침내 자본, 콘텐츠, 기술 및 사과의 새로운 융합시대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전자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영향력, 창의력 및 업계 자원의 통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매년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 전자출판 대상 시상식 개최

개막식에 참여한 문화부 김희범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 행사가 참신한 이야기를 쓰고 뛰어난 전자책을 만들며, 이를 즐겨 읽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와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

상 시상식’을 개최해 미국 뉴욕의 ‘디지털 북월드’ 등과 같은 대표적인 국제 전자출판 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작가 부문 수상작

- ▲대상 : 월요일이 없는 소년(황희)
- ▲최우수상 : 백조의 침묵(박설미)
- ▲우수상 : 조선기생 첩보열전(이혜숙)
- ▲특별상 : 한은만니야한다외2편(하도아)
- ▲장려상 : 여름이 오기 전에(김옥래), 모두가 알고, 너무도 분명한 안드로메다(문필연), N극의 결합(신진영), C.C. (Creature's Creativity)(이준우), 로맨스 소설을 읽는 마피아(유은지), 뜨더귀 세월(곽태욱), 화폐혁명(임현진), 라브리(Labri; 최후의 피난처)(송성근)

## 전자책 부문 수상작

- ▲대상 : 비버와 빨간 장화(쥬와이팩토리)
- ▲최우수상 : 문학동네 시인선(문학동네)
- ▲우수상 : 자동차 주말여행 코스북(도서출판 길벗)
- ▲특별상 : 아이포트폴리오
- ▲장려상 : 2014 스카우팅 리포트(북잼), 갤러리 오브 더 마스터즈 ; 빈센트 반 고흐(탭온박스), 한국의 왕궁 ; 경복궁(인문산책), 고슴도치 쿠페 아저씨(쥬슈니박스), 끼익끼익의 아주 중대한 임무(쥬퍼블스튜디오), 내 인생의 책(아이이랩), 수화(커뮤니케이션박스), 스마트 한국사(무니퍼블리싱)



1.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 개막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구본들 2. 인사말을 하는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3. 인사말을 하는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4. 대상을 수상한 황희 작가(좌), 김희범 차관, 김용남 쥬와이팩토리 대표이사(우) 5. 국제 콘퍼런스 행사장 전경 6.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 전시장 전경